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출세의 달인들–정도전(2)

어떻든 그 일(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스승과 친구에게서마저 등을 돌림)에 대한 인과응보였을까? 정도전은 그해(1391년) 9월 평양윤(평양 시장)에 임명되었으나 반대 세력들의 탄핵으로 경상도 봉화로 유배당하였고, 이어 나주로 옮겨졌으며 두 아들은 서인(庶人, 일반사람)이 되었다.

이듬해 봄, 귀양에서 풀려난 정도전은 어린 시절의 고향 경북 영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 무렵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부상을 입자,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려는 정몽주 등에 의해 탄핵을 받아 보주(고려와 금나라의 국경 요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러나 곧 풀려나 개경으로 올려진 후 충의군에 봉해졌다. 1392년 4월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살해되고 반대세력이 제거되자, 정도전은 7월 조준, 남은 등과 더불어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바로 정몽주의 행태이다. 오늘날 정몽주는 '충절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도 처음에는 이성계와 정도전 쪽에 서서 최영을 정계에서 몰아낸 후 이성계의 비호 아래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인물이다. 다만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데 대해서만 격렬히 반대했을 뿐이다. 그가 선죽교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살해한 태종 이방원이 자진하여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은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야 어떻든, 정도전은 조선 개국 직후 태조의 교지(敎旨, 국왕이 내리는 문서)를 지어 새 왕조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1등 개국공신으로 여러 벼슬을 겸직하며 정권과 병권을 장악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명나라에 가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알렸다. 1394년 1월 병제(兵制) 개혁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3월 경상, 전라, 양광 삼도도총제사(군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다.

한편,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가 세자로 책봉한 8남 방석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비(康妃) 소생인 방석은 이방원에 의해 폐위(廢位)되었고, 결국 방번과 함께 피살되고 말았다. 1394년 8월부터 정도전은 고려의 세도가들이 도사리고 있는 개경을 피해 한양 천도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서울의 모든 궁궐과 문의 이름을 짓기도 했다. 이념적으로는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고, 유교를 새로운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였다.

1398년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이방원(왕후 한씨의 5남)을 전라도로, 이방번(계비 강씨의 1남)을 동북면(함경도)으로 보내려 했다. 여기에서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다른 말로 '방원의 난',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이 난은 조선 개국에 가장 공이 컸던 정도전과 그에 못지않은 공을 세운 5남 방원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태조에게는 여덟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성계는 계비 강씨의 뜻에 따라 방석(芳碩)을 세자로 삼았다. 이에 대해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은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이방원은 크게 분개하였던 것이다.

방원의 분노는 첫째, 자신의 생모인 한씨의 소생이 세자 책봉에서 무시당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창업공신으로서의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방원은 지모(智謀)가 뛰어난 하륜을 영입하고 무장 이숙번을 받아들이는 등,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대척점에 서있던 정도전 역시 세자 방석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을만큼 세력이 당당하였으며, 남은, 심효생 역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소상공인 울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음력 4월 22일)

48년생 즐거운 고민에 마음이 설레진다. 60년생 다정다감 친절한 이웃이 되어보자. 72년생 전전긍긍 고민 마무리를 해내자. 84년생 멈추고 있던 부진 속도가 붙어진다. 96년생 예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아보자.

49년생 계획은 차곡 차곡 정상을 향해가자. 61년생 목표달성의 기쁨 만세가 불려진다. 73년생 이런저런 상념 시간이 약이 된다. 85년생 잘하려 하지 마라. 열심히 해야 한다. 97년생 초보 같은 실수 회초리를 맞아보자.

50년생 시돈 집 잔치에도 바쁘게 움직이자. 62년생 남지 않는 장사도 열심히 해야 한다. 74년생 아쉬움이 커졌던 꿈을 다시 하자. 86년생 칭찬이 한 보따리 기분은 날아간다. 98년생 아픔으로 배워야 완성이 빨라진다.

51년생 호탕하고 유쾌한 모습만 보여주자. 63년생 기회다 싶어도 저울질을 더해보자. 75년생 운명 같은 인연 내일을 그려보자. 87년생 비빌 이유 없다. 서서히 다가서자. 99년생 시도하고 애쓰고 완성을 향해가자.

52년생 아무도 없다는 헛헛함이 밀려온다. 64년생 응원과 기대에 보란 듯이 답해주자. 76년생 먹는 즐거움 입 꼬리가 올라간다. 88년생 좋거나 싫거나 표정관리 해보자. 00년생 비온 뒤 땅 굳는다. 좌절을 넘어서자.

53년생 재미있는 놀이 동심으로 돌아가자. 65년생 괜히 하는 간섭 본전도 못 건진다. 77년생 포장을 벗겨내야 진짜가 보여진다. 89년생 시키지 않아도 앞으로 나서보자. 01년생 더 넓은 세상으로 날개를 펼쳐내자.

54년생 모든 게 만족인 차선을 가져오자. 66년생 버리고 비워내는 과정을 거쳐보자. 78년생 실력도 솜씨도 전성기가 되어간다. 90년생 양반다리 하고 비씨게 굴어보자. 02년생 얼굴 바꾸는 약속에 미리 대비하자.

55년생 잠조차 잊어지는 경사를 맞이한다. 67년생 쨍하고 해가 뜨는 소식을 들어보자. 79년생 희생과 양보로 평화를 지켜내자. 91년생 까칠한 조언도 흔쾌히 받아내자. 03년생 아직은 미완성 가르침을 받아내자.

56년생 주연이 아닌 조연 뒷전을 지켜내자. 68년생 성공이라는 확신 밑줄을 그어내자. 80년생 가벼운 경고도 무겁게 들어보자. 92년생 때맞춘 도움이 급한불을 꺼준다. 04년생 의도치 않은 대화 불신이 쌓여간다.

57년생 칼로 물 베기 싸움 약자가 되어보자. 69년생 욕심은 탈이 된다. 선을 그어내자. 81년생 잘못은 용서하고 실수는 감싸주자. 93년생 부탁이 없어도 어깨를 걸어주자. 05년생 산넘어 산이어도 시작을 서두르자.

58년생 치명적인 유혹이 걸음을 잡아낸다. 70년생 언제인줄 모르던 설렘이 다시 온다. 82년생 괜히 하는 걱정 모양만 빠져진다. 94년생 떠나야 할 자리 미련 남기지 마라. 06년생 바쁘게 했던 준비 꼬리만 남겨진다.

47년생 세심한 주의 돌다리도 두드리자. 59년생 빈손인 적이 없는 고생에 나서보자. 71년생 아직은 시기상조 비밀을 지켜내자. 83년생 씩씩한 진두지휘 대장 노릇 해보자. 95년생 필요한 건 용기 거침없이 가야 한다.

사설

6·3대선에서는 진정으로 국민 위하는 자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성서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 내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한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고통만 심해질 뿐이다. 현재의 고민만 짊어지는 것도 버겁다. 그런데도 가없는 고통 속에서 헤맨다.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까지 만들어하기 때문이다.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 시골 부모님 집에 가면 걱정이 태산이다. 다 장성해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들 때문에.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밥 잘 챙겨먹어라. 건강 돌봐라." 등등 걱정거리 수가 많다. 차를 타고 집을 나서 마을 어귀를 돌아설 때까지도 꾸부정한 허리로 멀거니 쳐다보시는 어머니. 걱정스런 눈치다. 혹시라도 차 사고 날까 봐 그러시는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전화부터 한다. 도착하면 꼭 전화하라는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다. 전화를 받아야 걱정을 놓으시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사서 하시는 걱정이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살갑고 자식 사랑 물씬 풍기는 걱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심각한 걱정도 수없이 많다. 취업 걱정, 실업 걱정, 왕따 걱정, 실연 걱정, 이혼 걱정 등. 물론 당연히 벌 받아야 될 걱정도 있다. 부정축재자들의 발각 걱정, 범죄자들의 잡힐까 걱정, 모함 자들의 걱정 등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살을 에는 걱정이 있어야 마땅하다. 아무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면에서는 같다. 여하튼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걱정한다고 안 될 것이 될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걱정은 성서가 쓰여지던 시절에도 많았던 것 같다. 성서에서까지 언급된 것을 보면.

요즘 우리 주변에는 걱정거리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생활 걱정이 주류다. 이들의 주 책임자는 뭐니 해도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다. 대한민국 동맥 역할을 하는 그들의 오판과 나태 그리고 자기들만의 잔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날마다 하는 짓거리들을 봐라. 장관이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은 그들의 놀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제발 적당히 먹게 해주고, 옷 좀 입게 해주고, 적절한 문화생활을 즐기게 해달라는 것 외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작은 소망이다. 그런데도 그것마저 못 들어주고 있다. 선거 때만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해 표를 얻을 뿐 그다음은 나 몰라라 식이다. 그게 바로 정치권이다. 행정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의 비위는 잘 맞춰도 국민들의 눈치는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동맥경화증에 안 걸린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동맥경화는 곧 심장병으로, 뇌졸중으로 비화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목하 우리 사회는 총체적 난국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죽어나는 것은 결국 애꿎은 국민들뿐이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이 내일에 대한 걱정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거대한 불핵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귀중한 성서구절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좌다. 이를 하루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대오각성이 특히 필요하다. 그래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는 생각을 갖고 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6·3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들은 특히 명심하길 바란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062)528-4566
회 장 실 (내선)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 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